

소비 위축·건설수주 바닥... 지역 경제 '먹구름'

통계청, 작년 4분기·연간 경제동향
광주 건설수주액 전년비 23.6% ↓
4분기 민간건설 수주 82.8% 급락
소매판매 광주 2.4%·전남 1.6% ↓

호남권 건축공사 수주가 크게 줄어들면서 지역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광주·전남지역은 광공업 생산과 수출에서는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역 소매판매는 감소세로 돌아서며 올해 역시 고물가로 인한 경제 및 소비 위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호남권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건설수주액은 16조1575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토목공사 수주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0.6% 소폭 증가했지만, 광주지역에서 무려 23.6% 감소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가 크게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건설수주액은 지난 2019년 17.5% 증가한데 이어 2020년 15.3%로

증가폭이 줄어들었으며 2021년에는 1.0%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더니, 지난해 -6.7%를 기록했다.

지난 4분기 광주지역 건설수주액은 5071억원으로 토목공사는 46.4% 증가했지만, 건축공사 수주가 -84.7% 줄어 전년 동분기 대비 74.9%나 감소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민간건설의 수주액 감소폭(-82.8%)이 두드러졌는데, 지난해 하반기 주택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의 7% 내외를 차지하는 건설경기가 큰 폭으로 하강하면서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건설수주액 역시 전년 동분기 대비 15.8% 줄어들며 9년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활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역 내 소매판매 역시 지난해 광주는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가 줄어 전년 대비 2.4% 감소했으며 전남은 1.6%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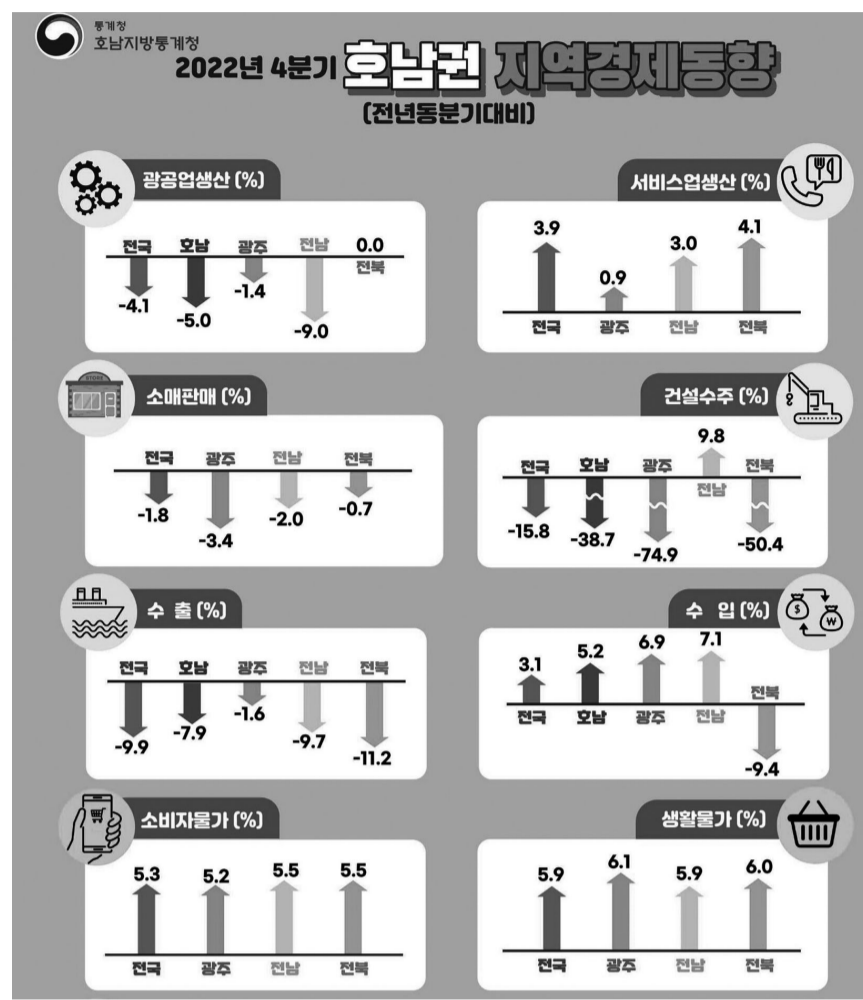
소매판매액지수로 살펴보면 광주의 경

우 백화점만 112.1로 상승세를 보였고 그 외 대형마트, 슈퍼마켓·잡화점 및 편의점,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등 모든 분야에서 지수가 하락했다. 전남 소매 판매액지수는 108.4로 역시 대형마트, 슈퍼마켓·잡화점 및 편의점,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등 모든 분야에서 하락하며 위축된 소비 분위기를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늘어 2.8% 증가했다. 수출은 프로세스와 컨트롤러 등에서 늘어나며 전년 대비 8.1% 증가했고 동시에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5.1% 상승했다.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화학제품, 1차 금속 등의 생산이 줄어 전년 대비 0.8% 감소했으며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 등에서 늘어 3.6% 증가했다. 수출은 경유, 기타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15.5% 증가했으며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5.7% 상승하며 강원, 제주, 경북,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은행, 한화투자증권과 주식매매서비스 출시

개인뱅킹 앱 시세 조회 등 가능

광주은행은 한화투자증권과 제휴를 통해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APP)에서 간편하게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매매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주식매매서비스를 통해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에서 한화투자증권 계좌 개설과 지수 및 개별 종목 시세 조회, 주식 평가금액 확인, 주식매매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과 추가적인 앱 설치 없이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주식매매서비스는 증권계좌에 연결된 광주은행 계좌 잔액으로 실시간 주식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증권계좌로 주식매매 금액을 일일이 이체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주식 관련 토픽과 실시간 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플하고 직관적인 화면 구성과 UI(User Interface, 사용자환경)를 통해 누구나 주식매매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광주은행은 주식매매서비스 실시에 따



라 오는 4월30일까지 '쿠폰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주식매매서비스에 가입한 선착순 2500명의 고객에게 스타벅스 쿠폰, 주유·편의점 쿠폰, 요기요 할인 쿠폰 등 고객이 선택한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 내 이벤트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대하 디지털기획부장은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 하나로 쉽고 편하게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주식매매서비스를 준비했다"며 "고객의 니즈 충족과 편의성 향상을 최우선으로 한 디지털금융 서비스 개발에 주력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세관, 지역 기업 FTA 활용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광주본부세관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2월 1일 RCEP FTA 발효에 이어 12월 1일 한-캄보디아 FTA·한-이스라엘 FTA, 올해 1월 1일 한-인도네시아 CEPA 등 신규

FTA 협정이 연이어 발효돼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FTA 전문 관세사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중견 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능력 강화와 수출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참여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1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수요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광주본부세관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21일 지역 중소·중견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2023 광주국제농기자재전시회' 성료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후원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가 특별후원한 '2023 광주국제농기자재전시회'가 20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광주국제농기자재전시회는 첨단 농업, 스마트팜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벤처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영농활동이 시작되기 전인 2월에 개최돼 그동안 농업활동으로 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농업인들이 대거 참여해 더욱 활기를 띠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하이콤의 비닐하우스 온풍기 및 무인방제기, ㈜정성택의 대형 복합기, ㈜희망농업기계의 축산기계, ㈜대전농기계의 최신 트랙터 등 광주·전남 농업벤처기업들의 최신 제품이 소개됐으며 '우수농특산품 및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판매전도 함께 이뤄져 호응을 얻었다.

김명술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난해 7월 개최했던 행사를 올해는 농한기 시점에 개최해 영농인들이 더욱 편안하게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광주국제농기자재전시회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업 및 농기자재 전문 살내전 시회이자 농기자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농업벤처 활성화와 지역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혜 기자

노동 칼럼

카페에서 일을 하던 A씨는 사업주에게 2월 말까지 사업장이 휴업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업주는 월급제로 일하는 정직원의 경우 임금을 모두 보전해주지만, A씨와 같은 시급제는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휴업이라는 것이 직원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통보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시급제는 무급으로 휴업 기간을 버텨야 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의 결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인의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거부된 경우를 '휴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휴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용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휴업의 절차에 대해 규정된 바 없기 때문에 서면이나 구두 등을 이용한 통지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

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는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등에 따른 휴업을 말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성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지변, 전쟁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을 말한다.

현재 A씨의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고 A씨는 계속해



이연주 공인노무사

노동을 제공할 의사가 있지만, 사업주의 거절에 의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급제라 할지라도 지난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

아야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 A씨가 일하던 사업장은 하루에 4명이 일하는 카페로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결국 A씨는 휴업수당

을 받을 수 없었다.

사업장이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외에 휴업수당이 적용되는 다른 사례도 있다. 일명 '쪼기'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소정 근로시간 도중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휴계를 부여하거나 퇴근을 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휴업을 부여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지시한 내용을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휴업통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는 언제든지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